

## 동의보감에서의 오미자의 효능에 대한 문헌 고찰

이 정 숙

대전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 Literature Review on the Omija activities in The DONGEUIBOGAM

Joung-Sook Lee

*Dept. of Traditional Cookery, Daejeon Medical Junior College*

#### Abstract

Literature review on the Omija activities in The DONGEUIBOGAM of the Korea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y Hur Jun.

1. This book comprises four items of Naegyeongpyeon, Oehyeongpyeon, Jab-bbyeongpyeon and Tangaegpyeon which were remedies in one element herb and complex elements herbs.

2. Treatment of one element by the Omija on the three items in the Sperm, Lung, Kidney, Bones, Asthenia, an Asthma and Thirst were evaluated to use for effective utilization.

3. The Tangaegpyeon of Omija were very effective on protection of the Gall Bladder, Lung and the Kidney.

#### 서 론

예로부터 동양인의 사고에는 醫食동원의 개념이 있어 생활주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초목에서 약효를 얻어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갖은 노력을 하여 약의 사용방법과 효능을 알게되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다<sup>1)</sup>.

또한 임란 후 선조(1567~1608)께서 국민 보건을 염려하시어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케 하였는데 명나라의 “의학입문”을 인용하고 있었다<sup>2)</sup>.

동의보감에서의 오미자의 효능은 성운, 미산,

무독하고 허노와 마르고 약해져 가는 것을 보하고 눈을 밝히며 수장을 따습게 하고 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의 정을 더하며 음중의 살을 나게하고 소갈을 그치며 번열을 제하고 주독을 풀며 해수와 상기를 다스린다.

孫真人<sup>3)</sup>이 가로되 여름에 오미자를 상복하여 오장의 기를 보하니 위로는 源을 滋하고 아래로는 신을 보호하는 고로 手太陰, 足少陰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오미자의 약효주치는 자양 및 강장 진해약으로 쓰이며 험폐, 자신, 생진액, 수한, 삼정, 지사(止瀉)의 효능이 있고 폐허 해수(咳嗽), 구중건조구갈(口中乾燥口渴), 자한(自

汗), 도한(盜汗), 노상이유(勞傷羸瘦), 몽정(夢精), 유정(遺精), 만성하리(慢性下痢)를 치료한다고 하였다<sup>4)</sup>.

부위별 약효로는 과실은 강장제, 수렴제, 기침약으로 이용되고 있고 씨, 열매, 뿌리, 줄기의 생약은 순환계와 호흡계의 자극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잎의 추출물은 정신병환자의 치료에 좋다고 한다<sup>5)</sup>.

한방의학면에서 오미자는 자양강장의 수렴제로서 오미를 구비하여 곧 산함은 입간보신하고 신고는 임신보폐하고 함은 입비하여 비위를 보익하며 진정, 진해, 해열 등의 중추억제작용<sup>6-8)</sup>이 있고 간장보호작용<sup>9-11)</sup>도 있으며, 혈압강하작용<sup>12)</sup>, 알콜에 대한 해독작용<sup>13)</sup> 등이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방의학에서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자의 활용도를 선조, 광해군의 어의인 허준의 동의보감(국역증보, 동의보감국역위원회 역편)을 기본 자료로 하여 분석하여 보았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본 론

동의보감에서는 내경편(內景篇), 외형편(外形篇), 잡병편(雜病篇), 탕액편(湯液篇)으로 나누어 각각의 증상에 대한 복합방과 단방으로 처방을 하였다.

### 1. 내경편에서의 오미자를 포함한 복합방

내경편 (一)은 신형(인신의 형기를 양생), 성(신형의 근본을 정으로 보고 주로 정액의 경우), 기(갓가지 기의 변조)와 신(신경정신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증후들)에 대한 약방으로 약제를 가루로 만들어 蜜로 환을 만들어 공심에 운주, 염탕 혹은 미음 등에 삼키거나 수전복하여 복용하였다.

연령고본단은 간, 신, 폐의 기능이 약해졌거나 중년이후에 노쇠현상으로 오는 제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sup>3)</sup>. 즉 안색이 衰朽하고 원기가 쇠약하며 목이 마르고 정력이 부족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하지무력, 하지통, 시력감퇴, 요통, 소

변불리 등에 복용을 하고 부인에게는 하초가 허냉하며 임신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을 요하는데, 복용시 무우, 파, 마늘, 쇠고기, 초산, 옻, 양고기 등을 금하였다.

표 1. 內景篇에서 五味子が 첨가된 처방

내경편(一)	연령고본단, 현토고본환, 파극환, 익기환, 황기탕, 양심탕, 청심보혈탕, 가감진심단, 천왕보심단, 평보진심단
내경편(二)	마황계지탕, 후박전, 가미온담탕, 독활탕, 인삼평보탕, 인삼청폐산, 행인전, 윤포환, 사자청음탕, 조위탕, 이감탕, 황기탕, 복령오미자탕
내경편(三)	성심산, 가감팔미환, 온신산, 인속산, 응심음자
내경편(四)	대토사자원, 기제환, 비정원, 육종용환, 파극환, 오미자산, 사신환, 삼출건비환, 백출안위산

천왕보심단은 정신피로와 심장기능의 쇠약으로 인하여 빈혈, 심계항진, 불안, 경계, 불면, 건망, 피로, 변민 등을 호소하는 사람, 체내의 수분결핍으로 변열이 나고 구진, 설조, 변비, 상기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복용한다.

내경편 (二)는 혈액, 수면, 음성, 진액과 담음에 대한 처방으로 진액은 체내의 정상적인 모든 수액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땀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고 담음의 「담」은 체액이 변화한 상태로 비생리적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음」은 음수가 변조된 상태로 비생리적 작용등을 말한다. 가미온담탕은 특히 심, 간, 기, 혈이 허약한 자가 복용하면 좋다고 한다.

내경편 (一)과 (二)에서의 황기탕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임상영양 새한방처방해설서<sup>15)</sup>의 황기탕은 소아가 결핵성 복막염의 허상을 띄어 복부팽만하며 硬結하고 소모열이 계속되고 마르고 약해져가며 도한이 있고 식욕이 감퇴하며 하리하기 쉬운 상태의 사람에게 복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동의보감과 차이는 오미자를 처방하지 않은 점이다.

표 2. 黃芪 湯에서의 五味子の 함량과 적용 증의 차이 비교

	내경편(一)	내경편(二)
오미자의 량	9립	7분
적용증	기가 허하여 발열, 百脈이 동요, 빈민, 머리가 무거운 증	陰陽偏虛, 自汗, 盜汗症
복용법	수전복	수전복

내경편(三)은 심장, 신장, 담낭, 기생충에 대한 약방이고 내경편(四)는 소변, 대변에 대한 약방이다.

2. 외형편에서의 오미자를 포함한 복합방

표 3. 外形篇에서 五味子가 첨가된 처방

외형편(一)	익음신기환, 가감주경원, 명목장수환, 자음지황환, 본사방양간원보신환, 중화양위탕, 공청원, 천문동음자, 서각산, 연백익음환, 환청환, 만청자환, 고분환청환
외형편(二)	선폐산, 용담사간탕, 가감사백산
외형편(三)	인삼익기탕, 복신탕
외형편(四)	오약평기탕, 양혈장근건보환, 신귀자음환, 가미사물탕, 자혈양근탕, 사제창백환, 청조탕, 수유내소원, 환소단, 상단, 청혼탕, 흑지황환

외형편(一)은 눈에 대한 처방으로 환청환은 눈에 오색화가 보이는 증세와 안질 혹은 노인쇠약으로 인한 여러가지의 눈의 증세를 다스렸고 각기 눈의 증세에 따라서 첨가 약제와 사용량의 차이가 있었다.

외형편(二)는 코, 구실에 대한 약방으로 용담사간탕은 辛熱物을 가감사백산은 酒麴과 辛熱物을 금하였다.

외형편(三)은 피부, 맥에 대하여 외형편(四)는 足, 전음(생식기), 후음(항문)에 대한 약방으로 복용법은 가루로 만들어 蜜로 화환하거나 수전복하였다.

가미사물탕은 사지가 연약하고 수족마비 증세로 거동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하고 뇌일혈, 척수염, 소아마비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3. 잡병편에서의 오미자를 포함한 복합방

표 4. 雜病篇에서 五味子가 첨가된 처방

잡병편(一)	오미자탕, 오화탕
잡병편(二)	신력탕, 지황음자, 환골단, 소청룡탕, 회양구급탕, 회양반본탕, 도씨익원탕
잡병편(三)	오미자탕(일명 가미생맥산), 생맥산, 삼유음, 황기인삼탕, 청서익기탕, 청폐생맥음, 삼귀익원탕, 생혈윤부음, 청금강화단, 보천환, 청폐자음산, 보음환, 감리기제환
잡병편(四)	청신익기탕, 인삼음, 보진환, 사당원, 사양보음탕, 대조환, 보천대조환, 보천환, 정기보허탕, 삼기건중탕, 녹용대보탕, 황기십보탕, 고진음자, 인삼영양탕, 보익영양탕, 이지환, 자음대보환, 가미호잡환, 구원심신환, 자보영양환, 윤신환, 신기환, 무비산약원, 보신영비환, 증익기용원, 현토고본환, 천금연수단, 현주운묘단, 신선거승자원, 신선기제단, 황기익손탕, 서련환, 당귀고, 익수고진단, 청신감로환, 보수고, 보진탕, 보화탕
잡병편(五)	삼호삼백탕, 행자탕, 자소음자, 글소산, 인삼애화고, 행소탕, 온폐탕, 가미이중탕, 팔미애동화산, 세폐산, 패모산, 삼출조중탕, 백출탕, 인삼궁귀탕, 가미인삼자완산, 보폐탕, 대영수탕, 대하교원, 이모영수탕, 단삼음자, 청룡산, 인삼산, 인삼백합탕, 패모탕, 구선산, 정폐탕, 윤폐제수음, 인삼청진환, 마황창출탕, 인삼음자, 청금음, 인삼정천탕, 삼소온폐탕, 오미자탕, 가미삼요탕, 가감삼기탕, 평폐산, 자소반하탕, 성천화담탕, 청금탕, 정폐탕, 행소음, 가감사백산, 가미생맥산, 인삼자완탕, 영폐탕, 인삼오미자산, 지모복령탕, 인삼평폐산, 자완산, 문동청폐음, 인삼영폐음, 금화선방
잡병편(六)	가미전씨백출산, 맥문동음자, 강심탕, 가감신기환, 녹용환, 자음영양탕, 활혈윤조생진음, 황기탕, 천화산, 황연지황탕, 문동음자, 옥천산, 현토단, 오죽옥천환, 가감백호탕, 가감백출산

잡병편(七)	탁리황기탕, 탁리복령탕, 가미십전탕, 삼기보폐탕, 삼출보비탕
잡병편(八)	오미자탕
잡병편(十)	고본건양단, 오자연중환, 양기석원, 궁귀보중탕, 마구령산, 천문동음, 선복화탕, 복신허기탕
잡병편(十一)	녹용사근환(일명 가감사근환)

잡병편(一)은 六辛年 주류의 紀 (歲水가 부급하고 濕이 성행하여 사람들의 질병은 부중, 창만, 身重, 濡泄하고 발이 위미하고 淸冷이 역상하며 脚下가 동통)에 오미자탕을 복용하고 己亥의 歲에는 厥陰, 司天, 少陽, 在泉인데 기화 운행은 後天이므로 오화탕을 복용한다.

잡병편(二)는 風, 寒(上), 잡병편(三)은 寒(下), 暑, 燥, 火, 잡병편(四)는 內傷, 虛勞에 대한 약방인데 현토고본환은 내경편(一)에서의 약방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신행을 다스리고 허로에 下元이 쇠약한 증을 다스리니 능히 陰을 붙게 하고 陽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잡병편(五)는 靑란, 泄수, 잡병편(六)은 소갈, 잡병편(七)은 옹서(上), 잡병편(八)은 옹저(下), 잡병편(十)은 부인병, 잡병편(十一)은 소아가 말이 늦고 걸음이 더딘 증상에 대한 처방을 설명하였다.

허로는 허(기, 혈, 진액 부족)로 인하여 피로한 탓으로 식욕부진, 정신혼미, 유정, 몽설, 허리, 등, 가슴, 옆구리, 근육, 뼈 등이 당기며 아프고 燥熱, 自汗하고 盜이 성하고 해수하는 등의 증상을 말하고 옹저는 부스럼 즉 종물의 총칭이다. 「옹」은 부분적으로 피부와 살이 부드럽고 반들반들해지면서 붓고 굵는 것을 말하고 「저」는 피부와 살이 단단히 굳어지면서도 붓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잡병편에서 오미자탕이 중복되는데 처방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4. 탕액편에서의 오미자의 효능

탕액편에서는 오미자가 氣가 厚하여 發泄하는데와 膽, 肺, 腎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동의보감 이외의 한방서<sup>14,17)</sup>에서 오미자를 함방제로 하여 처방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五味子湯의 적용증과 첨가재료의 차이 비교

	잡병편(一)	잡병편(三)	잡병편(五)	잡병편(八)
오미자	1전	3전	1전반	1전
부자포	1전			
과극	1전			
녹용	1전			
산수유	1전			
숙지황	1전			
두충炒	1전			
황기생				1전
인삼		2전		1전
백문동		2전		1전
진피		2전		
행인		2전	1전반	
갈홍			1전반	
계피			1전	
마황			2전	
감초			1전	1전
건생강			1전	
자소엽			3전	
생강	7전	5전		
대추		2		
염	약간			
적용증	六辛年 주류의 紀	傷寒에 喘促, 맥이 伏하고 厥	寒喘	옹저의 口燥, 舌乾(腎水가 渴한 증)

청열보혈탕과 청열보익탕은 혈허와 혈중 조열에 의하여 구설에 깨양이나 동통이 심하고 빈혈성으로 체력도 쇠하고 피부枯燥하여 혈열이 있는 사람에게 유효하다.

청열보기탕은 만성위염이 있는 허증인 사람이 위의 허열때문에 혀가 짓물러 설유두가 소실되어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혀가 저리기도 하며 음식물의 맛이 자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껌질이 박리된 것같이 구중 불쾌감을 느끼는데 효과가 있다.

령감오미가강신반행인탕(령감강미신하인탕)은 체내에 냉과 수가 있고 만성화해서 체력도 약해지고 열이 없이 천명, 해수, 수종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급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에 사용되고 부중, 복수, 네프로제의

일종, 만성위염, 왜축신, 복막염, 삼출성근막염, 폐수종, 심장성천식, 백일해, 각기 등에 처방된다.

위와 유사한 제증상에 령감강미신하인황탕, 령감강미신하탕, 복령오미감초탕, 령감오미강신탕등이 있다.

시호승습탕은 음낭 및 대퇴의 내측에 습기가 차서 짓무르고 발진이 생겨서 가려움증이 심한 음낭습진, 음부소양증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후박마황탕은 해수, 기관지천식, 폐기종, 백일해등으로 맥이 부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사간마황탕은 오래도록 기침이 멎지않거나 산후에 喘咳하고 후중에 그르렁 거리거나 킁킁 소리가 나는 사람, 백일해, 후두디프테리아, 기관지천식등에 적용된다

소청룡가석골탕은 폐창으로 기침을 하며 상기되고 변조하여 천식증상을 나타내며 복내정수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5.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에서의 오미자의 단방

단방은 각각의 증상에 대해 오미자만을 단독

표 6. 單方에서의五味子の 처방

내경편	精	남자의 정을 보익한다 腎은 정기를 삼하게 하고 芡實과 芡脫을 다스리니 1근을 씻어서 수침하고 하룻밤 재운 뒤 즙을 내어 남비에 넣고 蜜 2근을 타서 慢火에 끓이면 膏가 된다 1-2숟가락씩 空心 白湯에 調服한다
	肺 신장	肺氣를 수렴하니 茶服, 丸服한다 水腫을 따뜻하게 하고 腎을 보한다. 述類象形한 것이다 丸服, 煎服이 다 좋다
외형편	骨	筋骨을 壯하게 하니 丸服이 좋다
잡병편	虛勞	虛勞와 마르고 약해져가는 부족증을 보하면 얼굴이 빛나며 허열을 제하니 膏를 만들어 먹고 혹은 환전복한다
	咳嗽	咳嗽에 上氣하고 身熱한 증을 다스린다 오미자가 肺氣를 수렴하니 火熱에 반드시 써야 하는 약이다 久嗽에 오미자를 쓰는 것은 東垣의 법이다. 그러나 너무 驟하게 쓰면 그 芻를 달아서 머무르게 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먼저 發散劑를 경용하는 것이 可하다
	消渴	消渴을 그치는 데 가장 좋으니 달여서 항상 마시고 또 환을 지어서 오래 먹으면 津液을 낳고 渴을 止息시킨다

으로 처방하여 기대되는 효능과 복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미자<sup>14,16)</sup>는 수렴거담제로서 해수가 빈발하거나 갈한자에게 효과가 있고 폐기를 수렴하며 腎水를 滋한다. 陰을 강화하고 精을 蓄하며 허를 보하고 눈을 밝게한다. 열을 물리치고 汗을 거두며 嘔를 멎게하며 설사를 그치게 하고 번갈을 제거하고 수종과 주독을 풀어준다.

오미자를 1일 6~18g을 煎劑로 해서 자양강장, 수렴성 진해약으로 이용하였고<sup>18)</sup> 오미자차로 이용하면 사람몸의 각 장기에 생리적으로 좋은 작용을 하며<sup>19)</sup> 혈액내에서 혈당강화 효과가 있고 汗을 과다하게 흘려 갈증이 있을 때 체력을 증강시키고 체내에서 면역기능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한다<sup>20)</sup>고 한다.

또한 오미자주를 복용하면 피로회복, 기관지염, 천식을 다스린다<sup>21)</sup>고도 한다.

결론

우리나라의 전통 한방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의 오미자의 효능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의보감의 내용은 내경편, 외경편, 잡병편, 탕액편으로 분류되고 처방방법으로는 단방법과 복합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 내경편에서의 오미자는 인신의 형기를 양생하며 정액, 기의 변조, 신경정신에 작용하는 증후를 다스리며 체내의 비생리적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심장, 간장, 기, 혈이 허약한 자가 복용하면 좋다고 한다
3. 외형편에서는 눈, 피부, 맥박, 생식기, 항문의 이상현상을 다스리는 효력이 오미자에 있다고 한다.
4. 잡병편에서는 노약자와 허약하고 마른자, 해수, 응저, 심한 갈증을 느끼는 자 등에 효능이 있다고한다.
5. 탕액편에서의 오미자는 담, 폐,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6. 단방법에서의 오미자는 허노, 해수, 정액, 소갈에 효능이 있고 폐,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7. 오미자의 복용법은 水煎服하거나 썰작일침 혹은 가루로 만들어 蜜丸하여 공복에 온주, 엿탕 혹은 미음 등에 탐하한다

## 참 고 문 헌

1. 이은숙, 황춘선. 한국식문화학회지, 5(3) : 331, 1990.
2. 이성우. 한국식생활의 역사, 205, 1992.
3. 동의보감국역위원회 역편, 허준원저, 국역증보 동의보감, 남선당, 1188.
4. 정보섭, 신민교. 도해향약(생약)대사전, 식물편, 도서출판 영림사, 471, 1990.
5. 채영복, 김완주, 지옥표, 안미자, 노영주. 한국유용식물자원연구 총람, 한국화학연구소, 832, 1988.
6. 일본공정서협회, 일본약국방해설서, 제11개정판, 광천서점, D-0322, 1986.
7. 일본공정서협회, 일본약국방해설서, 제9개정판, 광천서점, D-297, 1977.
8. 한덕룡. 현대생약학, 한국학습교재사, 332, 1985.
9. 相賀徹夫. 중약대사전 제2권, 소학관, 동경, 867, 1985.
10. Nakajima, K., Taguchi, H., Ikeya, Y., Endo, T., and Yosioka, I., Yakugaku Zassi, 103(7), 743, 1983.
11. Hikino, H., Kiso, Y., Taguchi, H and Ikeya, Y., Yakugaku Zassi, 50(3), 213, 1984.
12. 지형준, 이상인.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주해서, 한국메디칼인덱스사, 572, 1988.
13. 이상인. 본초학 개정증보판, 수서원, 172, 1981.
14. 湯本求真纂저 주갑덕 역, 황한의학 제1권, 계축문화사, 1982.
15. 失數道明저, 구본홍역. 임상응용 새한방처방해설, (주)보건신보사, 1985.
16. 박성수, 염태환. 현대한방강좌, 행림출판, 1985.
17. 박헌재. 완역 금궤요략, 도서출판 서원당, 1986.
18. 紫田桂太편, 자원식물사전(증보개정 7판), 北隆館. 451, 1989.
19. 오혜숙. 월간식생활, 110, 1989.
20. 임미경. 월간식생활, 80, 1994.
21. 윤숙경. 양생음식, 한국음식오천년, 유림문화사, 116, 1988.